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배 지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좋은 교사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들의 이야기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선 아

좋은 교사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들의 이야기

배 지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선 아

인 준 서

김선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에서는 좋은 교사에 대한 유아교사들과 어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분석하여 교사들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의 자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좋은 교사에 대한 어머니들의 기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좋은 교사에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어떤 교사를 좋은 유아교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어떤 교사를 좋은 유아교사라고 생각하는가?

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유치원 교사 10명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의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유치원 교사 10명과 각각 2회씩 총 20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어머니 10명과 각각 2회씩 총 20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 기간 동안 총 40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개별 면담의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유아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교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들은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유아들을 만나는 교사들은 필수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를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동등한 인격체

로 여기면서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며 공감해주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좋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 하면서 수업에 대한 준비와 열정을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언급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을 성실히 하는 교사에게 유아들이 더 집중을 하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가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긍정적이고 행복한 교사, 유아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교사, 좋은 교사에게 가지는 기대와 감사함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유아들의 특성상 유치원에서는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사, 학부모, 유아 모두에게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은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였으며, 교사의 인성 중에서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교사가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은 좋은 유아교사는 유아교육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아를 관찰하고 지원하며 부모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어머니들은 교사와 자주 유아와 관련된 소통을 하기 원하였으나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이 교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 예상하였다. 어머니들은 공평한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였지만 자신의 자녀를 좀 더 사랑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유아의 연령적 특성상 유아교사는 많은 수고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고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연구자	5
II. 이론적 배경	7
1. 좋은 유아교사의 의미	7
2. 유아교사의 자질	9
3. 선행연구	15
III. 연구방법	18
1. 연구참여자	18
2. 연구절차	24
3. 자료수집	26
4. 자료분석	29
IV. 연구결과 및 해석	31
1. 좋은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	31
1)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 “유아들이 보고 배우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죠.”	

.....	31
2) 유아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교사 : “아이를 헤아려줌으로써 모든 교육은 시작 되는 것 같아요.”	34
3)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 : “똑같은 주제로 수업을 해도 좋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달라요”	37
2. 좋은 교사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47
1)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은 눈빛부터 달라요.”	47
2)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 “엄마 입장에서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죠.” ...	50
3) 긍정적이고 행복한 교사 :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죠.”	52
4) 유아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교사 :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 겠어요.”	54
5)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교사 :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최고 야!’ 하더라고요.”	58
V. 논의 및 결론	63
1. 요약 및 논의	63
2.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영유아들 유아교육기관 취학 연령이 점점 더 하향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사의 역할은 더욱 복잡해지고 중요하게 되었다.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감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와 사회의 기대치와 요구는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이에 유아교사의 역할과 그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유아교사의 자질 또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는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서 영유아 개인의 성장·발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저가 되므로(김성원, 석은조, 이춘옥, 2010), 교사의 역할과 역할수행에 필요한 자질이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최근 소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유아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와 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현 유아교육계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교사와 어머니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력적인 관계는 유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유아의 안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좋은 교사의 자질로 전통적으로는 인성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전문적인 능력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아교사의 자질을 논할 때, 일반적인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유아의 발달 특성상 다른 어느 학교의 교사보다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조정자(2007)의 연구는 유아교사에게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게 함으로서 좋은 유아교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교사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인성, 건강, 지식, 교수능력, 교육관의 다섯 가지 항목을 범주화하였다.

조운주(2007)의 연구는 예비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이금란(2000)이 사용한 은유를 활용한 개방식 서술 문항을 구성하여 이상적인 유아교사에 대한 은유와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들은 좋은 유아교사의 특성을 '사랑으로 돌보는 엄마', '유아의 눈높이 친구', '실천적 지식인', '조절된 정서 표현자', '열성의 소유자'로 인식 하였다.

서동미, 전은경, 엄은나(2008)의 연구는 좋은 교사의 의미를 한명의 교사가 원감이 된 위치에서 교사로서의 성장 과정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찾아보고자하였다. 연구결과, 교사의 성장을 교사가 교직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의 변화와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 환경과 관련되는 생태학적인 변화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좋은 교사는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교사',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사', '협력하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로 의미가 구성되었다.

엄은나와 서동미(2009)의 연구는 예비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교사의 의미를 알아 볼 목적으로 연구자가 3년제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교사에 한 저널을 분석하였다. 예비 교사들은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 '자기관리를 잘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로 보았다. 이 연구는 서동미 등(2008)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 결과를 보였으며,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의 범주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옥자(2009)의 연구는 유아교사들의 현장 속 이야기를 통해 유아교사들이 유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중심으로 좋은 유아교

사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 교사들은 유아의 존재 자체의 다름을 인정하고, 유아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 개별 유아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다르게 수행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교사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아의 달라진 모습에 좋은 교사로서 만족감과 교육적인 성취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사들은 자신이 계획한 수업이 아니어도 유아와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고, 함께 배움을 공유해 나가는 진지한 만남 가운데 좋은 수업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좋은 교사 혹은 좋은 수업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어떤 유아교사가 좋은 유아교사인가에 대한 논의를 학부모의 관점과 연결하여 분석하지 않았다.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로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전상희, 2012)가 있으며, 교사와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유치원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자질을 비교해 본 연구(변경애, 2008)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을 알아보는 연구(김지현, 2007)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교사와 예비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에 대한 연구(엄은나 외, 2009; 이경하 외, 2010; 조운주, 2007)는 이루어졌으나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거나 대부분 설문조사 위주로 양적연구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역할은 교사와 부모가 좋은 교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교사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를 밝히려는 선행연구(변경애, 2008; 조경자, 2007; 조운주, 2007; 서동미 외, 2008)를 종합하여 보면, 유아교사의 자질적

인 부분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 인성을 들고 있으며, 인성의 내용으로 유아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교수 기술을 갖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의 범주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좋은 교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유아교사나 예비 유아교사의 관점으로 한정되어 있다. 좋은 교사를 교사의 관점에서만이 아닌 교육의 또다른 수요자인 학부모의 관점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교사에 대한 연구가 주로 양적 연구로 이루어져 있고 교사와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사의 관점에서 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의 수도 극히 제한적이기에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현장의 주체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사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사에 대한 인식은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와 교육의 수요자인 어머니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기에 교육적 가치가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과 어머니가 들려주는 좋은 교사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들을 통해 교사들과 학부모가 원하고 생각하는 좋은 교사의 자질,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 좋은 교사에 대한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고자 한다. 유아교사와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좋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유아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며,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게 해 줄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현장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교사들은 어떤 교사를 좋은 유아교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어떤 교사를 좋은 유아교사라고 생각하는가?

3. 연구자

내가 초등학교 때 나의 어머니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하셔서 그 후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다가 내가 중학생 때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셨다. 뒤늦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람되고 행복해 보였고 나와 3살 터울의 여동생도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장하며 한 개인으로서 “좋은 사람”이 되어 내 주변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유치원 교사를 5년간 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 노력 했고, 동료 교사들은 “선생님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오면 꼭 맡아줬으면 좋겠어. 하늘반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라고 좋은 교사라고 격려 받기도 하였다. 학부모님들은 “선생님, 하연이 동생도 꼭 선생님 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거나 실제로 내가 맡았던 아이의 동생의 반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스스로 격려가 되고 더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원장님, 교사, 학부모, 유아와의 관계, 수업준비, 유치원 내 행사 등으로 점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나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없이 달려오게 되었다. ‘좋은 교사가 뜻하는 것이 완벽한 교사일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 대화 나누기를 좋

아하는 나는 동료 교사들과 현장 경험이 있는 엄마, 여동생과 함께 좋은 교사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며 서로 다른 생각들을 공유하고 또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기도 하였다.

또 교사들은 때로 “어머니들은 서교사를 좋아하고 좋은 교사라고 말하더라. 실제로 수업하는 거 봤어? 수업 때 아이들이 집중도 잘 안하고 수업 준비도 부족해 보이던데, 어머니들이 오히려 불만을 갖는 공교사가 진짜 괜찮지 않아?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머니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라든지 “어머니들이 한교사 반에서 황교사 반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한교사가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데” 라는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들과 교사의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와 교사가 보는 좋은 교사가 일치 할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 현장 교사로서 궁금증이 커졌다.

연구 주제를 듣고 교사들도 크게 흥미를 표현하였다. 동료 교사는 “선생님, '좋은 교사에 대한 교사와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이야기' 라는 주제로 논문 쓰시게 되면 저 꼭 주세요. 이제 2년차라서 어머니들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라고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연구자인 나 또한 교사들과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보고 싶었고 다양한 생각들 속의 공통된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좋은 유아교사의 의미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교사의 질이 강조되어왔다. 좋은 환경과 훌륭한 교육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교사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진다. 교육의 질을 대표하는 교사 질의 중요성으로 인해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좋은 교사는 훌륭한 교사, 이상적인 교사, 바람직한 교사, 우수한 교사, 효율적인 교사, 유능한 교사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조경자, 2007). 하지만 어떤 교사가 좋고, 훌륭하고, 이상적인 교사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교사의 자질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지만 교사의 자질 역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일과 역할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다(이은화, 배소연, 조부경, 1995). 또한 좋은 교사의 의미는 시대와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유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교사의 의미가 달라져 왔다. 과거 유아교육이 유아를 돌보고 양육하는 보호적인 역할을 담당 할 때는 유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유아에 대한 사랑이 많은 인성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좋은 교사로 보았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는 가르치는 역할과 보호의 역할을 다하는 자를 좋은 교사로 보았다. 오늘 날에는 교육과 보호의 역할 뿐 아니라 미래 사회

에 대비하여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좋은 교사로 보고 있다(이은화 외, 1995; 박은혜, 2003). 또한 교육이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함에 따라 교육이 사회 변화를 이끌어 가는 동시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상호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기에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모습과 기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상과 합리적 사고, 실증적 경험에 의해 객관적인 진리가 발견 될 수 있고, 이러한 객관적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된다는 입장이었다(김규수, 2001). 이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나 방법 등이 개별 유아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됨으로서 유아의 다양성이 무시되어 왔고, 개별 유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중심적인 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개성을 악화 시켰고, 다원적이고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다양한 유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개념 정체성이나 교육의 내용인 지식과 교육 방법도 유아가 속해 있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유아교사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장에서 유아교사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잘 전달하는가가 주요한 요건이었다. 하지만 유아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되면서 교사는 유아와 함께 끊임없이 지식을 새롭게 구성하고 창조해 나가는 사회적 협동자로서 그 의미가 변화 되고 있다(나귀옥, 김경희, 2008).

좋은 교사의 의미는 교육을 받는 주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평가하게 한 Mash(1991)의 연구 결과, 이들은 긴밀함, 온정, 열정을 가진 자를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는 학습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대상으로 어떤 교사를 원하는지 조사한 Sanders(2002)의 연구는 학교가 원하는 교사의 특성을 교수능력, 전문성, 인

성으로 보았으며, 교수능력과 전문성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가 2배 이상 많았다(조경자, 2007 재인용).

또한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Ling(2003)의 연구는 유아에 대한 사랑, 인내심, 성실성 등의 인성적 측면을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보았으며,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을 그 다음으로 보았다. 이상으로 "좋은 교사"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유아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주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조경자, 2007 재인용).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좋은 유아교사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유아교사의 자질을 통해 좋은 유아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를 밝히고자 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할은 교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좋은 교사의 의미도 교사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좋은 교사를 보는 관점,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관점에서 좋은 유아교사의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 유아교사의 자질

1) 개인적 자질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정의는 시대의 흐름이나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르지만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중요성은 변함없이 강조되고 있다. 유아교사의 자질은 유아교사로서 인격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유아교육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높게 기대된다. 유아교사의 자질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는 또 다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다. 유아

교사의 자질은 연구자에 따라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나눈다(박은혜, 2003; 이은화 외, 1995). 개인적 자질은 인성적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인성적 자질로 불리기도 한다. 인성은 성격이라고 하며, 감정, 지각, 행동에 있어서의 독특성을 기반으로 한 규칙성과 일관성이다(김정애, 2006). 또한 선천적 특성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환경에 의해 형성된 특성과 그 사람의 행동양식,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전재선, 2011). 2012년부터 도입된 누리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중 하나는 만 3,4,5세 유아의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있다. 또한 유아 인성 교육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성교육 우수 유치원을 선발하는 등 유아의 인성함양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3). 그러나 유아의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를 가르치는 교사의 인성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유아교사의 인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적 자질은 전문적 자질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데 학자 및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정의 및 관련 요소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교사 개인의 인성적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유아교사의 개인적 자질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김현란(2015)은 유치원 원장들이 생각하는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 자질과 관련하여, 성실성, 예절, 온유함, 책임감, 배려심, 도덕성 등에 대한 높은 품성을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인성으로 보았다. 또한 이경하와 석은조(2010)는 예비 교사와 현직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의 개인적 자질로 긍정적인 성격, 인내심, 공평함,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열정, 신체적 건강의 6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은화 외(1995)는 유아교사의 개인적 자질을 중요하게 보고 유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성실성, 봉사성, 원만한 인간관계, 사려성, 자발성, 도덕성,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제안하였다. 정신적 건강에는 긍정적 자아관, 타인에 대한 긍정적 사고, 건전한 인생관,

정서적 안정이 포함된다. 또한 강문희 등(2002)은 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온정적 성품, 유아에 대한 이해 및 수용과 존중, 열성적인 태도, 도덕적, 사회적으로 건전한 품성, 헌신적인 자세, 겸허한 자세, 인내, 봉사, 생각하는 자세를 제안하였으며 서영숙과 김경혜(2004)는 건강, 동기와 열정, 인내심과 이해심, 유아, 부모, 동료들의 본보기, 신뢰감과 존경심, 관심과 용기, 사적인 비밀을 지킬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자애로움으로 8가지 자질을 제시한다. 개인적 자질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유아교사의 개인적 자질은 교사의 인성적 특성으로 유아에 대한 사랑, 성실성, 정서적 안정, 친밀감 형성, 원만한 인간관계, 공정성, 일관성, 봉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의 인성은 교육활동의 수행에서 기본이 될수 요소(강기수, 2000)이며, 교사나 성인,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며 학습하는 유아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개인적 자질이 잘 갖추어진 교사가 필요하다(백승선, 2010). 학부모들 또한 기관 선택 시 유아교사의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유진, 이규진, 이정주, 2008).

일부 대학의 유아교육과에서는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성 교육을 채택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되는 유아교사 직무연수에 서도 인성관련 주제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전재선, 2011). 유아교사의 보수 교육 및 현직 교육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교사의 인성적 자질이 강조 되면서 유치원 교사의 자격연수 과목에도 교원 윤리와 인권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12).

2) 전문적 자질

교육에 있어 교사의 전문적 자질은 교사의 개인적 자질과 동시에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최혜진, 황해익, 2005). 이러한 전

문적 자질은 유아교사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 현재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대해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양하며 강조점 또한 차이를 보인다. 이혜경(2010)은 전문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변화에 맞는 지식, 전체 안에서 개별 유아를 보는 눈, 대체할 수 없는 경험 지식, 교류를 통한 공유, 성장의 즐거움을 제시하였다.

이은화 외(1995)는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지식과 교수 기술로 나누었으며, 지식은 또다시 일반 교양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 교수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지식, 유아에 대한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교수 기술에는 교육과정구성 기술, 프로그램 실천 및 평가 기술, 의사소통 기술, 부모 및 전문가 참여 기술, 창의성, 융통성 교재교구 제작 및 활용 기술을 포함 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양옥승(2002)은 유치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 유아에 대한 개별화와 융통성, 보살핌과 협력, 현장성과 정보 기술의 이해 유아의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성과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의 능력 지속적인 자기 갱신 삶에 대한 비전으로 보았다.

김현란(2015)은 유치원 원장들이 원하는 유치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과 관련하여, 교수-학습방법, 유아의 특성, 유아의 교육과정의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다 깊이 있게 갖길 바란다고 하였다.

Jalongo와 Isenberg(2000)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로 문제 해결 전략의 사용, 전문적 신장에 대한 추구 협력, 윤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융통성과 도전, 지속적으로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해 목표 세우기, 위험 및 실수를 감수하는 태도,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아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과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유아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의 풍부함은 유아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지식은 교사 교육과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의 경험을 통해 형

성되며 이러한 교사의 지식은 교수 상황을 해석하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 및 교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이정옥, 2000). 또한 유아교사의 지식 정도는 교수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김혜라, 2013;정명숙, 2007, 최기영, 모정아, 권진주, 2012).

유아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식 습득과 관하여 유아교육법에서도 법규로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 항과 유아교육법시행령 제8조 제 항에 따르면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교육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치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연수를 받아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논의 하는 데 있어 교사의 자격기준은 중요하다. 이는 교사의 자질에 관한 최소의 법적 기준을 경력 교육 등으로 정한 것을 자격이라 할 수 있으며 교사 자격은 교육활동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송광용, 2000).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직이 전문직으로 인정 받기위해서 엄격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권건일, 신재흡, 2007). 양옥승(2002)은 유아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대학 졸업과 교사 자격증 제도를 분리,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교육연한을 4년으로 연장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실습의 강화, 현직 교육 체제의 효율적인 활용, 평가인정 기준의 조정,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교사 양성체제의 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사 자격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법 21조 유아교육법 22조 2항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이원화 되어있다. 조부경(2013)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교원 정책 방안에 관한 논의에서 보육교사의 경우 3급에서 1년간의 경력과 교육 후 2급으로 승급

할 수 있다는 점과 유치원 교사의 경우 현재 준교사로 근무하는 교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교직의 출발점이 전문대학 이상인 반면 보육교사는 3급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있기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수준에는 많은 차이가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있어 교사자격 기준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유치원은 교사 자질의 향상과 근무연속을 위한 조항으로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는 빠른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적응하고 대비하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유영의, 2011).

OECD 여러 국가들은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목적으로 유치원 및 학령 전 교사의 자격을 갱신하고 있으며 특히 보육교사나 가정보육교사 보다 유치원 및 학령 전교사들의 자격 갱신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다(OECD, 2011).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교사 및 보육 교사의 자격증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원과 보육교사 각각의 등급에 따른 갱신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사자격제도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 있는 반면 관련 제도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으며 유아교사직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 유아교사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 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자격체계의 개편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종합 해보면 유아교사의 자질은 인성적 자질인 개인적 자질과 전문성과 관련한 지식, 교수, 기술, 교직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적 자질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3. 선행연구

좋은 교사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좋은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강소영, 2011; 백승선, 2010; 서동미, 전우경, 엄은나, 2008; 윤희경, 2013; 이경하, 석은조, 2010; 조경자, 2007; 조운주, 2007; 최옥자, 2009)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좋은 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자질 또는 특성을 규명하여 좋은 유아교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시대 변화에 따른 교사 특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의 선행 연구들이 있다. 서동미, 전우경, 엄은나(2008)는 그 시대의 교육관이나 교사 역할에 대한 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져 왔다고 하였다. 학문중심주의적 관점에서는 교사의 지적 특성이 중시되었고, 인간주의적 관점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아동 존중사상, 자기 절제 능력 등이 더 많이 강조되었다.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과 박은혜(2003)는 과거 교육이 영유아를 돌보고 양육하는 보호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는 영유아에 대한 사랑이 많은 인성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좋은 유아교사로 보았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될 때는 가르치는 역할과 보호의 역할을 다하는 자를 좋은 유아교사로 보았다고 하였다. 또한 오늘날에는 교육과 보호의 역할 뿐 아니라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좋은 유아교사로 보고 있다.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직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백승선, 2010; 이경민, 엄은나, 2005; 차정윤, 2007; 한명자, 1993; 한수진, 2001)에서 교사들은 인성과 전문성 모두를 중요하게 여겼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엄은나, 서동미, 2009; 윤희경, 2013; 이경하, 석은조, 2010; 이현숙, 2001; 조경자, 2007; 조운주, 2007)에서도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나누어 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어머니들은 연구에 따라 인성(강소영, 2011; 김지원, 1998), 또는 사명감, 개인차 고려, 교육관을 포함하는 교육적 태도(유혜인, 1990)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 자질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를 알아본 연구(전상희, 2012)에서 교사의 자질을 인성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적 자질과 전문성, 교수기술, 교직태도를 포함한 전문적 자질로 분류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는 교사의 인성적 특성으로 유아에 대한 사랑을 가장 높게 선택 했으며, 교사의 전문성으로 유아 정서 발달에 대한 지식, 교수기술로 유아의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언어, 교직태도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아교사와 부모의 인식을 알아본 연구(변경애, 2008)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에 대해 살펴본 결과 교사와 부모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문적 자질에서 교사의 지식, 교수기술에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는 실제 자질 보다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신념적 기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사의 자질을 알아보는 연구(김지현, 2007)에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 인성적 특성과 교직에 대한 태도를 다른 자질의 하위영역 보다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에 비해 인성적 특성, 전문성, 교육기술에 대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좋은 교사의 특성은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열정, 자신과 타인에 대한 높은 기대, 관리능력 등이다(Reed & Bergemann, 1992; Segall & Wilson, 1998; 조경자, 2007 재인용).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좋은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자질을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적 자질을 인성적 자질로 보았으며, 전문적 자질에는 전문적 지식,

교수기술, 교직태도 등이 있었다. 둘째,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해 교사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개인적 자질 보다 전문적 자질에 대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자질에 대한 자기평가에 비해 기대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와 부모가 바람직하게 여기며, 선호하는 유아교사의 자질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좋은 유아교사에 대해 교사나 예비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유아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1) 유치원 교사

본 연구의 대상은 유치원 교사 10명으로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 양쪽의 교사 이야기를 담기 위해 공립 교사 5명, 사립교사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지인과 대학원 동기들의 추천을 받았다. 그 후 연구자가 직접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안내하여 자의에 의한 참여의사와 동의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에 동의를 한 교사 1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 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모든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일반적 특성

이름	연령(성별)	교사 경력	교육기관 유형	최종 학력
고교사	41세(여)	17년	공립	대졸
김교사	26세(여)	2년	공립	대졸
이교사	30세(여)	6년	공립	대졸
정교사	39세(여)	15년	공립	대졸
한교사	33세(여)	10년	공립	대학원졸
오교사	29세(여)	7년	사립	전문대졸
유교사	25세(여)	2년	사립	대졸
장교사	30세(여)	3년	사립	대졸
박교사	31세(여)	5년	사립	대졸
전교사	26세(여)	1년	사립	대졸

고교사는 17년차의 교사이다. 만5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병설 학급이 1학급이라 전반적인 행정사항과 담임교사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에는 교사로서의 발전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여 유아교육 석사 과정 재학 중에 있다. 대학원에서 교사론 수업을 들으며 좋은 교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연구 참여를 수락하게 되었다.

김교사는 2년차 교사로 실습 때 병설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뒤 그 때 병설 교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 병설 교사로 지원하여 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좋은 교사에 대한 연구의 주제가 흥미롭다며 흔쾌히 연구에 참여해주었다.

이교사는 6년차 교사로 3년차까지는 사립 교사로 3년차부터는 공립교사로 근무하며 두 교육기관을 경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교사는 15년차 공립 교사로 좋은 교사라면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 교육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학부모들과 상담하며 더 전문적인 상담과 부모 교육을 하고 싶어 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에 있다.

한교사는 10년차 교사로 교사 경력 초반에는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였지만 경력이 쌓여가며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원에 재학 할 당시에 연구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운 동기들을 많이 보았다며 연구자의 연구에 흔쾌히 참여해 주었다.

오교사는 7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주임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 중 1정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 1정 연수와 연구에 참여하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교사에 대해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하며 연구에 참여하였다.

유교사는 2년차 교사로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현재 다니는 교육기관의 원장님 이하 모든 교사들이 아침마다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교육을 실천하는 유치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장교사는 2년간은 유치원의 중일반 교사를 하다가 정규반을 올해에 맡게 되었으며 작년에는 현재 다니는 유치원에서 중일반 교사를 경험하였다. 그

로 인해 종일반 교사가 정규반을 맡는 것에 대해 부족함은 없는지 생각하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와중에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박교사는 5년차의 교사로 한 유치원에서 5년을 근무하였으며 현재 만5세 담임과 연령주임을 맡고 있다. 5년 동안 다양한 교사 유형을 보며 좋은 교사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며 나는 어떠한 교사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전교사는 레지오에밀리아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초임으로 유아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도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구자와 만나 좋은 교사에 대한 교사와 어머니들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2)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유치원에 자녀를 최소 1년 이상 보내고 있는 어머니 1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지인과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다. 그 후 연구자가 직접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안내하여 자의에 의한 참여의사 동의 얻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참여의사에 동의를 한 어머니 1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 한 연구 참여자의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본명은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표 2> 연구 참여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이름	연령	직업	교육기관 유형	자녀
시우 어머니	39세	중국어 과외	사립	만5세 여아
영현 어머니	39세	전업주부	사립	만4세 여아
시현 어머니	40세	전업주부	공립	만5세 여아
채연 어머니	41세	전업주부	사립	만4세 여아
나운 어머니	38세	소그룹 미술수업	사립	만4세 여아
하영 어머니	43세	자영업	사립	만4세 여아
규빈 어머니	36세	학원강사	공립	만4세 남아
은지 어머니	46세	전업주부	사립	만5세 여아 만3세 여아
호람 어머니	35세	전업주부	공립	만4세 남아
태민 어머니	36세	회사원	사립	만5세 남아

시우 어머니는 자택에서 중국어 과외를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만4세 딸을 두고 있다. 유치원에 보내며 남아와 여아 또 두 자녀가 가진 특성에 따라 좋은 교사라고 생각 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생각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교사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첫째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며 초등학교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며 자녀들이 좋은 교사와 매년 만났다는 만족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영현 어머니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만4세 여아를 두고 있다. 아이들을 키우며 보육교사에도 관심이 생겨 진학을 위해 정보를 모으고 있는 상황

이었다.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로 인식되어 있었다. 아이 들을 키우며 나름의 좋은 원과 좋은 교사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생님들의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지 매우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시현 어머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만5세 딸을 두고 있다. 다른 엄마들과 유아교육에 관련 된 정보나 교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공립 교사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채연 어머니는 만4세 딸을 두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 하다가 또래 여아들에 비해 소극적인 딸과 함께 하기 위해 직장의 휴직계를 내고 육아에 전념하며 아이의 장점 또 단점이 더 정확하게 보여 어려운 점도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아이의 소극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현 교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나운 어머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만4세 딸을 두고 있으며 2명의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며 만나게 된 선생님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소그룹으로 미술수업을 하며 유치원 교사가 1대 다수를 보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어떤 연령의 교사보다 더 자격 기준이 강화되고 사회적인 대우와 지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영 어머니는 두 딸을 두고 있으며 첫째 딸은 초등학교 저학년 둘째 딸은 만4세이다. 자신을 급하다고 표현하며 교사로서는 차분하게 기다려 주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표현 하였고 교사가 전문가로서 부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으면 하였다.

규빈 어머니는 만4세 남아를 양육하며 피아노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피아노 학원에는 어린 연령의 유아도 오기 때문에 자녀 뿐 아니라 다른 유아들도 만날 기회가 있고 같은 교사로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에는 피아노 학원과 유치원이 연계된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유치원 교사들을 다양

하게 만나보았고 또한 동료로 만나서 그냥 보는 것으로는 좋은 교사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 하며 구체적인 생각을 이야기 했다.

은지 어머니는 현재 전업주부이지만 과거에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로 15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평소 아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자주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유치원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호람 어머니는 두 자녀 모두 한 교육기관에 보내며 오랜 기간을 함께 보면서 교사와 기관에 신뢰감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연구에도 흔쾌하게 참여하였다.

소진 어머니는 남편이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 할 때에 자녀를 중국에 있는 한국식으로 운영되는 한인 유치원에 보낼지 국제 유치원에 보낼지 현지 중국 아이들과 함께 보낼 지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서 한인 유치원에 보낸 경험이 있다. 여러 교사와 기관을 다양하게 경험 하였으며 현재에는 집과 가까운 거리의 공립에 아이들 보내고 있다.

태민 어머니는 현재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를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좋은 취지인 것 같다고 다시 참여의사를 밝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재 다니는 원을 신뢰하고 태민이가 여태 만든 교사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 절차

1) 예비연구

면담에서 사용할 질문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예비면담을 실시했다. 연구 참여자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유

치원 교사 2명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실시하기 전 사전연구로 유치원 경력 15년 이상의 사립 유치원 원장 1인과 지도교수에게 조언을 받아 반구조화된 면담지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은 수정하거나 없애고 교사와 어머니들이 직접 경험했던 사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교사와 어머니들의 생각을 드러다 볼 수 있는 질문들로 수정 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는 2015년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연구자의 지인과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자가 직접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안내하여 자의에 의한 참여의사 동의 얻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참여의사에 동의를 한 유치원 교사 10명과 어머니 10명들을 선정하였다. 면담은 유치원 교사 10명과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이 이루어졌다. 유치원 교사 10명과 2회씩 20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10명과도 2회씩 20회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총 40회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이후 추가 질문이나 면담내용 확인이 필요할 경우 전화 면담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 레포형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면담에서는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면담을 마친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전사함으로써 기록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면담에 대한 기록과 함께 면담 시의 분위기, 면담과정 중의 특이사항, 연구자가 느낀 점, 이후 면담에서 추가할 질문들을 함께 기록 하였다.

3. 자료수집

1) 유치원 교사 면담

유치원 교사와의 면담은 귀가지도 후 해당 교사가 담당 하는 학급의 교실이나 커피숍 등 연구 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면담은 1인당 2회의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면담의 간격은 1-2주 이내로 이루어졌다. 1차 면담에서는 연구자와 교사와의 라포 형성을 위해 일상의 대화들을 나누며 교사가 된 계기, 연구 참여 동기, 지금 맡고 있는 학급 이야기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작하였다. 그 후에 좋은 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교사가 만나본 좋은 교사, 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2차면담에서는 1차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만들어 면담을 진행하였다. 1차 면담에서 이야기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나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다른 교사들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실제 경험과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은 평균 40분~60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 3> 심층면담 질문 목록(교사용)

구분	내용
좋은 교사의 자질에 대한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웃에 유치원에 갈 유아가 있다면 부모에게 교사를 볼 때 어떤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2. 좋은 교사가 갖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교사에 대한 실제 경험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닦고 싶던 좋은 교사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좋은 교사라고 생각 하셨나요? 2. 멘토가 되어주는 교사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도움 받으십니까? 3. 내가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이신가요? 4. 내가 좋은 교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교사로서 실제 수업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아를 교육 하시면서 가장 마음 뿌듯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유아와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 선생님께서 반 운영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중점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4. 선생님께서 반을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5. 선생님의 교수방법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부모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고 계신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 학부모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7.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2. 주변의 교사들이 하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3.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2) 어머니 면담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와의 면담은 집이나 커피숍 등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면담은 1인당 2회의 개별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면담은 평균 40분~60분 정도 소요되었다. 1차 면담에서는 라포 형성을 위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의 대화를 나눈 뒤 좋은 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머니가 만나본 좋은 교사,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 내용에서 사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과 자녀가 내년엔 만났으면 하는 선생님,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 자녀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한 교사, 어머니들 사이에서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 하는 교사에 대해 실질적인 내용과 교사에게 가지는 바람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든 면담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 녹음하였다.

<표 4> 심층면담 질문 목록 (부모용)

구분	내용
좋은 교사의 자질 대한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좋은 교사가 갖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어떤 교사가 자녀의 담임교사가 되기를 원하셨나요?
좋은 교사에 대한 실제 경험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좋은 교사라고 생각 한 유아교사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어떤 교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2.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화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어떤 점이 그러셨는지 자세히 말씀 해 주세요.
어머니가 바라본 실제 수업 부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사의 수업을 참관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세요. 2.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 하시나요? 3.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자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웃에 유치원에 갈 유아가 있다면 부모에게 교사를 볼 때 어떤 측면 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시겠습니까? 2. 교사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3. 교실의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개방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총 40회의 개별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면담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 녹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면담 시 연구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메모하여 관찰자 의견(observer's comment)

을 남겼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면담자료들은 분석적 귀납방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개방적 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기초해서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방법(김영천, 2012)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심층면담 자료를 반복해서 정독하면서 자료들의 의미가 잘 드러난 문장들을 줄을 긋고 괄호를 치는 세그멘팅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세그멘팅한 자료들 중에서 반복적인 내용의 유형과 사고들을 찾아 1차적인 초기 코딩을 하였다. 1차적 범주 목록인 ‘유치원 교사들의 좋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와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좋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범주의 내용은 다시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세부적인 하위목록으로 유목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코딩 된 핵심적 내용들을 보다 잘 드러내고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주제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자료 분석 과정 중에 각 단계에서 자료 분석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치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외에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와 유아교육전문가와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연구 해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좋은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

유치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유아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교사, 수업 준비를 성실히 하는 교사,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로 범주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 “유아들이 보고 배우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죠.”

면담에 참여한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좋은 교사의 특징은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였다. 교사들은 바른 인성은 눈으로 곧바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며 좋은 교사의 핵심 역량으로 보았다. 유치원 교사는 인성이 발달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유아기의 유아들과 하루의 만나질 이상을 함께하며 유아의 인성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적 환경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이렇게 인성 그런 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배경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경력이 또 어떤 유치원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 데 눈으로 바로 확인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고교사, 2015년 5월 23일)

아무리 똑똑한 교사도 인성이 안 되면 아이들 지도하는 데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도 인내. 인내.. 그리고 절제력 같은 거요. 그 순간의 감정 같은 것도 그렇고, 학부모를 대할 때에도 그렇고요. 뭔가 일이 많지만 아이들을 위해 뭔가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힘들지만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김교사, 2015년 6월 13일)

인성이 바르고 성실해야 일 년을 끝까지 잘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가지구. 많이 봤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일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썩썩한 교사랄까요?

(유교사, 2015년 7월 12일)

교사들은 유치원의 1년 정규과정을 유아들이 수료하기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인성 중에서도 교사의 인내와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그 중에서도 유아기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데에는 인내력이 공통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 또한 현직 교사로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아이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주스를 흘렸다고 했을 때 “좀 더 조심했어야지.” 왜 흘렸냐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주스를 흘렸고, 정말 단편적인 예지만 그런 식으로.. 근데 교사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바쁘거나 힘든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 더 손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케어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모르게 좀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고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매 순간 그런 상황에서. 음 그리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교사보다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이고, 어른 대 어른이면 당연히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스스로의 양심이 가장 중요하죠. 교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초임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초임한테 잘해주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같아요. 저경력 교사를 존중 하는 태도도 없는 데 자신만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에겐

어떻게요?

(전교사, 2015년 6월 28일)

전교사는 교사들이 유아들과 함께 하는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도 유아들을 존중해 주고 이야기를 들어 주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양심’이라고 표현 하였다. 보통은 담임체제가 정담임 1명이기 때문에 어른 한 명이 다수의 어린 유아들이 있는 공간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알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좋은 교사라면 수업시간 외에 동료 교사들과 보내는 시간에서도 자신보다 저경력인 교사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였다.

결국은 어쨌든 이 기관에서 오래 일하던 오래 일하지 않던 오래가는 교사들을 보면 인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인성도 바르고 왜 앞 다르고 뒤 다른 교사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실력이야 뭐 다니면서 교사로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이고 그냥 딱 봤을 때 이 교사가 뭔가 인성적으로 따뜻함이 없거나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박교사, 2015년 8월 3일)

아이들이랑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실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유치원에서 오래 근무하려면 성실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따뜻한 마음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것 보다 그것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인성은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교사, 2015년 5월 23일)

박교사와 오교사는 5년차 이상의 교사들로,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을 본 경험적인 면에서 좋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유치원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대체로 인성이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경력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오교사는 교사들이 학부 때 인성 교

육을 받는 다 해도 아는 지식과 실천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교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경미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좋은 인성을 가진 교사를 양성 하는 데 큰 도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교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유아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모방의 대상이 되는 교사의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인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인성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치화, 객관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인성을 가진 교사를 선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유아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교사 : “아이를 헤아려줌으로써 모든 교육은 시작 되는 것 같아요.”

유아교사들이 이야기 하는 좋은 교사는 유아를 어린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명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 교사, 유아와 눈높이를 맞추어 소통 할 수 있는 교사를 좋은 교사가 가진 특징으로 이야기 하며 좋은 교사라면 유아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교육기관이기는 한데 어쨌든 내 아이의 반나절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어도 부모만큼 내 아이를 품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유아기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교사라면 뭘 해도 아이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주고 놀이를 보더라도 또는 수업을 하더라도 활동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해줄 수 있는 같아요.

(박교사, 2015년 8월 3일)

예절 같은 부분들? 예의가 꼭 상하관계에서의 예의가 아니라 내 밑에 쪽 아이한테도 예의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조그마한 아이들이라고 해서 막 반말을 하거나, 반말도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들었을 때 친근한 반말이 있는가 하면 “야, 너, 이리로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억압적인 반말들이 있고 예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

하는 예의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교사, 2015년 8월 6일)

박교사는 보육과 교육이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유아기의 특성상 좋은 유치원 교사는 따뜻한 마음으로 유아들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교사이며 교사 주도적으로 반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과 소통하고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반영적 태도를 갖춘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정말 아까도 계속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의 눈을 보고 소통 하는 교사요. 하늘이 예쁜 색일 때 “저 하늘을 봐~!” 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공감 할 수 있는 교사? 그런 교사가 좋은 교사의 공통된 그런 게 아닐까요.

(박교사, 2015년 8월 3일)

교사들은 유아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교사에 대해 자신이 보았던 좋은 교사의 실제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해나갔다. 특히 박교사는 한 번 더 강조하여 유치원에서 하루의 만나질 이상을 보내는 유아들을 수용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소통과 공감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지금 유치원에 계신 주임선생님이 뭐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있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촬영이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애들한테 이해시키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뭐 그 구체적인 과정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해서 뭐가 좋은 건지 다 이해시켜주려고 하시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교사, 2015년 8월4일)

유아의 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 인격적인 접근을 그 아이도 더 공감하고 또 선생님의 노력을 아이들도 읽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더 친해지면서 확실히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헤아려 줌으로써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교사, 2015년 6월 21일)

교사들은 유아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야하고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아를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또한 교사들이 유아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유아들도 교사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느끼며 교육적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전교사는 자신이 생각했던 좋은 교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교사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아이한테 주의를 주고 행동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있고 그거는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제가 봤던 좋은 선생님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입은 웃이라든지 인상착의 이렇게 돌려서 그 아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지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작게 보면 정말 사소한거지만 사실은 철학이 담겨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도 결국은 다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이들도 사실 뭔가를 잘못 했을 때 이름을 불린다는 게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쉽게 간과를 하거든요. 잘못을 했으니까 이름을 불러서 시정할 수 있다. 근데 좀 아주 작고 세심한 것부터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조정할 수 있게 인내심에게 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으로 남았던 사례가 있어요.

(전 교사, 2015년 6월 28일)

사례에서와 같이 전교사가 만났던 좋은 교사는 유아의 이름을 불러 훈육함으로써 수치심을 주기 보다는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교사였다. 유아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로 “OO야!” 이름을 불러 훈육하기보다 유아가 자신을 먼저 한 번 돌아보고 수정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그 유아만 알 수 있도록 먼저 신호를 보낸 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사의 입장에서 편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교사와 유아의 지위나 연령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 여기고 유아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 : “똑같은 주제로 수업을 해도 좋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달라요”

(1) 반 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해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

교사들은 좋은 교사의 수업 준비도 대해 이야기하였다. 수업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보았다.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의 바쁜 일과 중에서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을 토로하며 좋은 교사의 수업 준비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제가 실습할 때 4학년 때. 선생님께서 공립선생님이셨거든요. 부장교사.. 부장 교사도 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수업 연구 같은 것도 하셨어요. 일이 그렇게 많은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매일 준비하시고, 아이들이 이야기 하는 것도 다 받아들이셔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실습생인

저를 너무나 잘 도와주시고, 일지도 항상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코멘트 달아주시고 그런 면에서 정말 ‘아 이런 교사가 있었구나.’ 하고. 이게 제가 교사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분은 존경하는..

(김교사, 2015년 5월 30일)

음, 네. 지금 저희 부장님이 그러세요. 물론 사람은 다 장,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단점은 안 보여도 다른 사람 단점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장, 단점은 있지만 부장님께서 경력이 많으시죠. 15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사립이랑 다르게 병설이기 때문에 아직도 담임을 맡은 교사를 하고 계시죠. 근데 아직도 수업준비를 하거나 그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찾아보고 아직도 연구하는 모습은 굉장히 존경스럽죠.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인 거 같기도 해서.

(한교사, 2015년 7월 30일)

김교사와 한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적인 서류 처리로 인해 수업 준비가 어렵게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같이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교사 경력 2년차가 되어 근무하는 김교사는 공문이나 행정 업무를 하면서 수업 준비도 함께 하는 상황이 매우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김교사는 지금 생각 해 보면 실습 학생일 때 만난 부장 교사가 공립 유치원에서 해야 하는 공문들이나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며 실습 지도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준비 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한교사도 자신과 함께 근무 하는 부장 교사를 좋은 교사의 사례로 들며 공립에서 해야 하는 공문이나 서류를 해내는 동시에 수업 준비에도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는 모습이 좋은 교사의 특성이라고 말하였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작은 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 전반적인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하였으며 그것이 수업의 질과도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공문으로 인하여 뒷전으로 수업 준비가 밀려날 때에는 스스로가 좋은 교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때도 있다고 하였다.

좋은 교사의 특징, 요즘에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왜 인터넷 사이트도 많고 뭐 이런데 여러 가지에서 계획안을 그냥 받아쓰면 되는 것들도 많고. 작년 계획안을 그대로 쓰는 교사도 진짜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라면 자신의 반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수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뭐 잡지 이런 계획안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반 아이들에 맞는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좋은 교사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교사라고 생각 할 때가 수업 계획과 준비를 성실히 할 때예요.

(박교사, 2015년 8월 18일)

또한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로 수업 준비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박교사는 수업 준비에 있어 어떤 기관이나 사이트 또는 다른 사람이 쓴 계획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학급의 유아들이 가진 특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합한 계획안을 작성하는 교사라고 하였다. 반면에 인터넷에 있는 계획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작년에 사용했던 계획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교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열정을 가지고 재미있게 수업 하는 교사

또한 교사들은 철저하게 수업을 준비하여 재미있게 수업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하였다.

제가 느끼기에는 수업을 재밌게 하는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고 어떤 수업이든 이야기 나누기여도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그 시간을 정말 이렇게 지루해서 움직이는 친구 없이 하는 교사가 정말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오교사, 2015년 7월 19일)

이번에 종일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진짜 경력이 많으신데 정말 열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준비를 진짜 잠을 안자고서라도 해 오시는거예요. 그래서 정규 과정보다 훨씬 종일반이 재밌다고 느껴질 정도로 수업준비를 하세요.

(유교사, 2015년 7월 12일)

유아들은 그냥 말로 했을 때보다 시청각자료나 뭐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주제나 뭐 언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더 잘 받아들이고 수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업준비라는 것은 유아교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이 없거나 이럴 때는 그냥 수업준비를 가장 먼저 놓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교사, 2015년 8월 4일)

교사들은 수업에 대해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유아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그전에 아이들을 향한 열정을 가진 수업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교사들은 열정을 가지고 반복되는 하루일과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시도하여 적용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이자 닮고 싶은 교사라고 이야기하였다. 열정적인 교사는 유아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랑 같이 발령받은 대학도 같이 나오고 한 살 어린데 친구예요. 되게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많고 창의적이에요. 공립에서는 보통 그냥 지도서에서 나오는 대로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그 선생님은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을 생각해서 그거랑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계속 시도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사진을 봐도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게 느껴지더라고요. 열정이 있어 가능한거겠죠?

(고교사, 2015년 5월 24일)

구성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놀이를 하고 상호작용하는 교사와 교사가 주도가 돼서 아이들이 정말 군대식으로 로봇처럼 잘 움직이고 결과가 나온거랑 둘 다 똑같은 모양의 어떠한 참여수업 형태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비슷해 보일 수는 있는데 아이들은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런.. 뭐랄까 생각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어른이 되어서 점점 축적되서 나오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힘을 저는 믿고 있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 인재상 그런 말하기도 하잖아요.

(전교사, 2015년 6월 21일)

연구에 참여한 교사 중 가장 고경력자인 고교사와 가장 저경력자인 전교사 모두 열정을 가진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고교사는 동료 교사가 발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도전감을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유아들의 모습 속에서 행복감이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3) 감정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감정조절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좋은 교사로 교실에서 유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때가 있다고 고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별다르게 제가 지금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하나 건사하기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2년차가 되었거든요. 근데 마음 속으로 항상 감정을 절제 시키자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라던지 아이를 훈육할 때도 한 번 더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시도해요. 근데 그게 어렵죠.

(김교사, 2015년 5월 23일)

제가 노력하는 건 교사를 하다보면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때 말을 안 하려고 해요. 침묵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침묵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정돈 된 다음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방향을.. 그러니까 저도 좀 따뜻한 교사가 되고 싶은데 현실에 부딪쳐서 그렇지 못할 때 마인드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참 이제 고민이 되네요. 제 감정대로만 해서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박교사, 2015년 8월 13일)

아래의 사례에서 이 교사는 자신이 본 좋은 교사에 대한 경험을 사례로 들며 이야기하였다. 이교사는 유치원에 경력이 많은 교사가 유아들뿐 아니라 경력 교사에 비해 경력이 적은 교사들에게도 같은 태도로 존중하며 대해 주었다고 말하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조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감정조절을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화나면 막 표정으로 제압하기도 하잖아요. 그러지도 않아요. 눈도 항상 이렇게.. 평상시 눈. 화내지도 않고 정말 천사. 약간 그런걸 보면서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좋으셨어요. 아이들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저 같은 경력이 적은 교사한테도 똑같이.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유교사, 2015년 7월 12일)

교사 경력 1년차인 전교사도 좋은 교사는 저경력 교사에게도 좋은 태도를 보이고 존중한다고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2년차인 유교사도 좋은 교사는 저경력 교사나 동료 교사에게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다. 전교사와 유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유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교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경력 교사들의 수업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저경력 교사일 경우 고경력 교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교사의 유아를 대하는 태도를 유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감정 조절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생각한 좋은 교사 중 인내하는 교사를 많이 언급한 만큼 교사들 스스로도 그 부분을 위해 마인드컨트롤을 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열까지 센다거나, 멈추고 생각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교사들에게 감정조절능력은 교사들이 가장 많이 노력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현장에서도 계속되는 배움에 대한 노력

교사들은 다양한 연수나 자기계발에 참여함으로써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1년에 60시간 이상의 연수는 필수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연수를 통해 성장하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더 좋은 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누리과정 연수들을 때 되게 좋은 프로그램 많았던 거 같아요. 그 때 들었던거.. 그때 되게 좋은 강사님들 많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과학이나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읽어주시니까, 교사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김교사, 2015년 5월 23일)

공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요. 작년에는 105시간 연수 받았고 안전에 대한 연수도 있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거.. 또 다문화에 대한거 다음에 교사 자아 탄력성이라던가 행복 탄력성. 안전에 대한 연수도 도움이 됐었구요. 그리고 행복 탄력성에 대한 것도 도움이 되었고 저는 주로 교사가 편하고 마음이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스트레스가 안가니까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듣는 편이에요.

(고교사, 2015년 5월 23일)

유아인성교육에 관한 연수였어요. 그렇죠.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 많잖아요. 교사 연수도 가면 ‘그래. 그랬지.’ 하지만 돌아와서 사실 실생활에서 교육상황에서 그렇게 못하는 경가 있는데 인성연수도 듣고 굉장히 또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자극은 됐지만 할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뭐랄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설명 해 주는 거, 훈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의 대한 방법도 잘못된 게 많았구나.’ 를 좀 느꼈어요.

(한교사, 2015년 7월 30일)

감성역량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유아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서로 아끼고 뭐, 공유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을 연수에서 배워 활용하고 있어요. 신체 수업도 있구요. 노래로 배우기도 해요. 특색 활동으로 하고 있어요.

(김교사, 2015년 6월 21일)

고교사의 경우에는 15년차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1년에 60시간의 연수를 받으면 되지만 그보다 45 시간이 초과되는 시간을 연수 받는 데에 사용 하였다. 오교사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숲 체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숲과 관련된 연수를 받았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며 최근 1년 내에 받은 숲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에 숲 연수도 받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연수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숲 연수 같은 경우에는 좀 도움을 많이 받은 편이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엔 아직 한번 밖에 안가 봐서 많이는 도움 받지 못했지만 숲 같은 경우에는 워낙 모르는 나무 이름이나 활동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숲 놀이를 아이들이랑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나 식물에 대한 꽃의 이름이나 나무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그 다음에 또 숲놀

이 행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알아보았어요.

(오교사, 2015년 5월 23일)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연수를 듣고 그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도 자신이 흥미 있는 연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듣고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교사들은 교육대학원 진학을 통해 재교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두 교사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며 이론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그런 것도 또 들을 때랑 와가지고 실천하는 거랑은 틀리긴 하는데 공부하면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해 줘야겠다. 부모들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실천 부분이 부족하긴 하지만요. 좋은 교사에 대해서도 대학원에서 교사론 들으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면담 한다고 하는 데 참여한 것도 있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고교사, 2015년 5월 24일)

저는 처음 교사 생활 할 때에는 아이들 지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건, 가정에서 변화가 없다면 아이들의 변화도 일시적이더라고요. 무용지물이 되는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서 부모님들과의 상담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해서 대학원을 상담 심리쪽으로 오게 된거죠. 전 만족해요.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되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교사, 2015년 5월 24일)

고교사와 정교사는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대학원에 진학한 계기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고교사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시 한번 교사론 수업을 들으며 좋은 교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본 연구에도 연구 참여자로 함께 한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정교사는 부모 교

육의 중요성을 느꼈고 상담 기술의 필요성을 느껴 상담 심리학과 석사 과정 공부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고교사와 정교사 모두 10년차 이상의 고경력 교사이지만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었으며 재교육을 통하여 익숙했던 유아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배움에 대한 교사들의 노력 중 하나는 전문서적 읽기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유아나 부모와의 관계나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나 막힘이 있을 때 전공서적이나 책을 찾아본다고 하였다.

솔직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는 못하겠는데... 어떤 문제 상황이 있거나 이러면 자료를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책을 본 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보를 좀 찾아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정도예요.

(오교사, 2015년 7월 19일)

얼마 전에도 친구가 책을 선물해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법 이런 책을 읽었어요. 진짜 그 부분이 저한테 요즘 제일 궁금한 부분이라서..

(김교사, 2015년 5월 30일)

저는 일단은 조금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뭐 책이나 자료나 이런 걸 찾아봐서 그걸 조금.. 뭐 알까 제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 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까진 아닌데 일단 네. 그런 편이에요.

(장교사, 2015년 8월 4일)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현장에서 교사를 하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느꼈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가지 교육들에 자발적 참여를 통해 노력 중에 있었다. 교사들은 학부에서 배운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쁜 교사 생활 속에서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연수, 대학원 진학, 독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움을 이어나나가려는 실천적 노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좋은 교사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1)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눈빛부터 달라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 10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좋은 교사의 개인적 특성은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어머니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 아이를 대하는 교사와 형식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교사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는 마음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게 정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 한마디를 하고 제스처를 취하는 게 선생님이 이걸 의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가르치는 내 제자 너무 예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 안 가르쳐도 되고 그냥 정말 원 안에 있는 그 시간만큼 아이들이 ‘아 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다.’ 그냥 그러고만 와도 저는 너무 만족하거든요.

(시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그냥 알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은 틀리잖아요. 애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어야 되고, 아닌 분들은 정말 관심 없게 보는 선생님도 있어요. 정말 애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가서 한 번 더 만져주고 좀 안아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하영 어머니, 2015년 7월 31일)

기본적인.. 일단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싫어하면서 왜 유치원 교사를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특히 유치원 아이들이 얼마나 어리고, 사실 말도 많고 달도 많고. 그러면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소통도 사실은 원만하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일을 못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돌, 저희 집에 돌 키울 때도 막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통솔하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이들이 막 요구 하고 뻑뻑거리고 뭐라 뭐라 이야기하면 소음으로 들리고 피곤하고 그럴 것 같아요. 교육이 될까요? 사람인데.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시연 어머니, 하연 어머니, 시우어머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두었고 영아 때부터 자녀들을 기관에 보내며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사들을 직접 만나고 또 다른 어머니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기보다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교사의 평소 작은 행동들까지도 중요하게 관찰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시우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가끔은 힘들고 벅찬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유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줬으면 하는. 물론 교육도 있어요. 유치원은 교육이잖아요. 교육도 있지만 앞서서 또 그렇다고 보육은 아니지만 교육과 보육의 중간 정도를 유지해서 애를 좀 인간적으로 다가가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거요.

(채연 어머니, 2015년 7월 28일)

또한 채연 어머니는 이번 해에는 육아휴직을 하여 채연이와 시간을 갖지만 작년까지는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 하며 느낀 부분들에 대해 말하였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있지만 유아의 정서적인 부분도 사랑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교사에게도 엄마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머니들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하자면 좋은 유아교사가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

은 필요가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겨울쯤 참여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이 이때까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매달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일일이 3월 달, 4월 달 쪽 하시면서 이제 맨 끝에 3월 달에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 이만큼 성장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울컥하시면서 말씀 하시는데 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감동받아서 저까지 뭉클 했어요.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빨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 선생님은 “부지런 하게 하자. 부지런히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해주시니까 애가 내가 “빨리 해야 돼.”, 선생님이 “부지런하게 하자.”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길 듣고 나도 따라하게 되고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존중 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영 어머니, 2015년 6월 28일)

시현어머니는 특히 참여수업 때에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유아를 사랑으로 대하는 교사의 태도에 대해 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참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우선이 아니라 부모가 우선인 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반면 참여 수업에서도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이야기하였다.

무슨 일처리를 할 때 어른이 볼 때 완벽하게 뭔가를.. 깔끔하게 하는 그 일처리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순간 아이한테 신경을 쓰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유치원 굴러가는 데에 신경 쓰는 선생님보다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생각 하는 선생님이 좋은 교사라고 생각해요.

(시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워 공개수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이 선생님은 아~ 뭔가 보여지는 것에 부모들이 평가하고 보여 지는 거에 되게 신경을 쓰는 선생님이다, 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집중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키는가에 목적을 두고.. 예 워 그렇게 좀 아이들 다룬다. 그게 보이거든요.

(시현 어머니, 2015년 6월 28일)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개인적 자질은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들은 교사에게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2)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 “엄마 입장에서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죠.”

교사와 마찬가지로 모든 어머니들은 좋은 교사가 가져야 할 자질로 바른 인성이라고 대답하였다. 어머니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내와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교사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제력이 강한 교사여야 될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을 잘 하고요. 그러려면 그 전에 많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워 인문학적 소양이나 그런 걸 많이 접하고 해서 속에서부터 조금.. 내공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인성.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스킬보다. 스킬도 중요한데.

(채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인성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럴지 못한 분들이 아이들 때린다든가 욕박지른다든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 할 수 있는, 인내심이 좀 있고 아이들 좀 이해 하려고 노력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마인 저한테도 가끔은 어렵고 그룹별로 미술 수업을 제가 하는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소그룹 수업인데 가끔은 감정조절이 어려울 때도 있는 데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실거예요.

어렵겠지만 인내력이 중요해요.

(나윤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나윤이 어머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미술 수업을 하면서 감정 조절이 가끔 어려웠던 자신의 경험을 들어가며 교사의 인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에도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즉 나윤이 어머니는 좋은 교사는 바른 인성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 하였다.

좋은 교사의 특징이, 꽃별반 선생님이나 지금은 선생님 말고 전에 선생님이었는데 되게 인내하시는 분 같아요. 애가 좀 왜, 애들 많이 다루면 빨리 빨리 안하면 와서 먼저 해주거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말로 되게 지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정말 되게 바쁠 텐데도 개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애를 소홀하게 보는 건 아닌데 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되게 계속, 계속 인내하는 것 같아요.

(소진 어머니, 2015년 7월 31일)

소진 어머니는 중국과 한국에서 유치원 교사들을 보며 두 나라의 교사들을 경험하였다. 한국에서는 소진이 6세 때는 사립 유치원, 7세 때는 공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면담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가장 다양한 교사들을 경험 하였다. 또한 소진 어머니는 결혼 전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다. 또한 자신의 성격이 급하다고 표현하며 좋은 유치원 교사는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인성은 어떤 과목으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성을 가진게 더 중요한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은지 어머니, 2015년 6월 28일)

어머니들은 인성적인 부분은 유아교육을 전공했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른 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긍정적이고 행복한 교사 : “교사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도 행복하죠.”

많은 어머니들이 좋은 교사는 긍정적인 교사라고 대답하였으며,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보려면 교사 스스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이 교사의 성향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단은 언어사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첫째 6세 때 선생님처럼 좀 긍정적인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 아이들도 긍정적으로 되고 항상 보면 유치원을 보내면 그 해에는 그 선생님 말투나 이런 거 다 애들이 따라해요. 그러면 내가 집에 있어도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지는 못해도 한번 씩 애가 던지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추측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시고 말씀도 긍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되면 그냥 일 년 잘 좋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아이들의 긍정적인 것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것? 대부분 엄마들이 그럴 때 위안 받는 것 같아요. 위안이라보다는 자기가 사실, 엄마들은 잘하는 면도 많이 보지만 부족해서 걱정되는 면들도 많이 보잖아요. 선생님이 긍정적인 부분을 봐주셨을 때 애가 이러한 면도 있다 이런 거는 봐줄 때 그때 자기도 다시 한 번 개에 대해서 다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아 이런 면들도 있지 생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좀 미처 캐치하지 못했다가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걸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주시면 아 또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내가 보면 안되는 부분 말고 이

러한 부분도 봐주시는 구나.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20일)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 데 아이들의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 장점을 보면, 애는 계속 단점 보다는 장점이 먼저 보이는 거죠. 요런 요런 장점이 있어, 애는 요런 장점이 있어, 그렇게 계속 장점들을 계속 이야기하다보면 아이들이 그 장점을 기준으로 발전하면서 다른 것도, 단점도 될 수 있는 점도 같이 이렇게 커가는 거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요.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27일)

영현 어머니는 특히 지금은 초등학생인 영현이의 오빠가 활동량이 커서 만 3세 때 만난 교사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만 4세가 되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사를 만나 아이가 변화되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영현 어머니도 아이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가장 좋은 교사로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 아이를 공립에 보내는 데도 주변 엄마들을 보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립 다니는 엄마들끼리는 어디가 야근을 많이 한다더라. 어디 유치원 원감님이 선생님들을 힘들게 한다더라.. 교사가 힘들면 아이들한테 어떤 좋은 게 갈 수 있겠어요. 교사도 사람인데...

(시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저는 유치원을 알아볼 때 저 유치원 교사들 퇴근시간이 몇시인지도 알아봐요. 맨날 야근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힘이 나겠어요. 그런 유치원들 보면 야근도 한 두번이지 교사들이 자주 바뀌고 그러더라구요.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27일)

영현 어머니와 시현 어머니는 교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야근이 잦거나

업무가 많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원장님, 원감님의 소문이 좋지 않은 곳은 꺼린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어떤 유치원이 야근을 많이 해서 교사를 힘들게 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시현 어머니는 공립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비해 퇴근 시간이 빠르고 전문성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더 좋은 교사가 많지 않겠냐고 반문 하였다.

일단 선생님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고 선생님 가정이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날 아침에 선생님 이 부부싸움을 했는지 다 알아요. 딱 조레할 때 선생님이 인상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계신다면 되게 잘됐으면 좋겠고.

(소진 어머니, 2015년 7월 31일)

어머니들은 한 개인으로서 교사가 행복해야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아이들에게도 행복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교사의 행복이 곧 아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좋은 교사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4) 유아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교사: “전문가로서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어머니들은 좋은 교사는 아이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교사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작은 아이가 <까만 크레파스와 괴물 손> 그런 책이 하나 있었었는데 자기가 맘에 들어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서 읽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그거가지고 선생님이 도

와주셔서가지고는 아이들이 낸 아이디어로 이렇게 큰 비닐 있잖아요. 거기 에다가 아크릴물감을 이렇게 휘장처럼 만들어서 야광 스티커도 붙여가지 고 천장에 다 걸어놨더라구요. 형광등 밑에다가.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거해!’ ,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 ‘오늘은 이 시간이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지켜보시다가 아이들이 건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수업으로 이끌어 오셔서 아이들이 같이 작업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걸 볼 때, 되게 만족스러운 거 같아요.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저는 큰 애가 다녔던 유치원의 선생님이 참 기억에 남아요. 경력이 많은 선생님이셨는데 참여수업을 갔더니 장수풍뎅이를 직접 키우는 거예요. 큰 관에다가 키우면서 거기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만 만들면 본드작업이 좀 쉽지가 않으니깐 그걸 엄마가 도와서 본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설계도를 그리면 종이에다 설계도에 맞춰서 나무판이라던가 뭐 비즈라던가 이런 걸 해서 같이 꾸며주고 그걸 이제 다 마르고 나면 거기 안에 넣어주는 걸 하는데 그 장수풍뎅이가 움직이면서 놀이터로 올라가는데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만족도를 느끼는 거예요. 아이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재미있구나 같이 이렇게 하니깐 재밌는 거예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슴벌레를 사서 집에서도 같이 키우고 나름 나무 막대기를 가져다가 미끄럼틀 같이 만들어 주고 이게 교육이 이 유치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같이 엄마하고 할 수 있고.

(나운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면담 도중 나운 어머니가 이야기한 좋은 교사가 근무했던 곳이 현재 전교사가 근무하는 원임을 알게 되었다. 전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와 나운 어머니가 이야기 하는 좋은 교사의 특징 중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를 좋게 보는 부분이 일치하였다. 시현 어머니는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높으면 교사가 유아에 대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한편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아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야 기본생활습관이 나 교육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 1명당 아이들을 맡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뭐 100% 이렇게 만족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아이의 가정환경이 어떨고,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떨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뭔가 구체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아이를 대하는 선생님? 예,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시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집에서 아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엄마가 잘 알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선생님이 지도 해주는 거랑 엄마가 하는 게 틀려요. 엄마가 하게 되면 감정이 많이 들어가 버려요. 아무래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강도는 약하겠지만 좀 더 그거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기대를 갖고 그런 걸 관찰 할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아닐까 해요.

(채연 어머니, 2015년 7월28일)

채연 어머니는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늘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눈에 띄어 요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며 교사라면 어머니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해 부모와 소통 해 주기를 바랬다. 채연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 채연이의 특성 중 어려운 점에 대해 말하며 힘들다고 이야기 하는 교사를 보았을 때 자신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5살 때랑 6살 때 인사를 거의 안했거든요.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도 받은 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1년 동안 시현이랑 인사를 같이 주고받으려고 이렇게 시현이 눈높이에서 손을 잡고 “안녕히 가세요~” 이려고 계속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셨어요. 거의 1년을. 그1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이들 나갈 때 우루루~

나가는 게 한 두 명이 아닌데 호연이만 딱 이렇게 집중해주셔서 인사해 주시면서.. 사실 그때 호연이가 뭐가 막 바뀌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7살이 돼서 애가 좀 씩씩한 모습을 보이더라고 요. 너무 감사하죠.

(시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시현이 어머니는 시현이가 만3세 때 사회성이 부족해서 치료를 받았던 적도 있기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가 일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닌 1년 동안 꾸준히 노력 해주는 정성에 시현이가 작게나마 변화가 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나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 없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1년간 하는 교사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이야기하였다. 잘 하는 아이라고 해서 1년간 정말 잘 지내기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제대로 된 관찰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이 항상 전화하시고 그러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이러시는데 사실 그게 가끔은 서운한 거 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시고 특별히 다른 얘기가 없으신 거예요. 뭐 친구 관계라던가 또 아니면 선생님 하교의 관계라던가 아이가 아무리 차분한 애들도 가끔은 좀 기분이 나빠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기분변화가 애들이 있으니까 뭐 변화된 생활들이 있을 텐데도.. 일 년 내내 한결같이 너무나 항상 같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사실 아 선생님이 우리 애를 잘 보고 있는 걸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예요. 제가 가서 볼 수도 없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는 잘 안보시고 다른 애들 좀 더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가끔 들더라고요.

(나운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위의 이야기를 통해 어머니들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잘한 이야기이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건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에서 나온 어머니는 부정적인 생각을 표현하였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 잘 지낸다는 표현이 아닌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관찰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함이 나타났다.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들은 교사가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찰자 역할과 지원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관찰을 통해 파악하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5)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교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하더라고요.”

(1) 소통하는 교사

어머니들은 교사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도 유아와도 소통을 잘되는 좋은 교사를 원했다. 일방적으로 말을 하거나 듣는 것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자주 나누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교사들이 전화나 만남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말 잘 들어주는 선생님. 부모가 하는 말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걸 경청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채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유치원 때에는 선생님이랑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소통’을 잘하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뭐 학부모뿐만 아니라 아이하고도 소통을 뭔가 잘하고 이러시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방어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서로 인지 하면서 아이의 마음도, 선생님의 마음도 이렇게 서로서로 공감할 수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이면 좋은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 같아요.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20일)

(2) 공평한 교사를 원하는 마음과 내 아이를 더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의 갈등

어머니들은 공평한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며 원하는 동시에 내 아이를 더 사랑해줬으면 하는 양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교사는 공평한 교사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내 아이를 사랑해 주었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채연이 어머니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부모들은 다 그렇죠. 내 아이를 먼저 좀 챙기는 것 같더라는, 내 아이를 좀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 생각 할 때 좀 더 흑하고 되게 좋고 그런데 이제 그 참여수업에서 우리 자녀가 약간 수줍어하고 잘 긴장하고 그래서 잘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고 흥을 주고 뭐 그런 부분도 좋았고, 음.. 뭐 편지 발표하는 것도 있었는데 일부러 저희 애를 먼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부족한 아이에게 먼저 좀 더 세워주는 것. 세워 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채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반면에 영현어머니와 규빈 어머니는 좋은 교사라면 공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선생님들마다 선호하는 아이가 있고 그게 좀 다르다고 교사인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다 보니. 그러다보면 이렇게 이야기 하면 웃

긴데 잘못만나는 경우, 정말 1년이 너무..힘들게 되는거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구요. 아는 분이 교사인데 자기도 정말 종잇장 한장 차이인데 똑같은 아이라도 자기 주관적인게 들어가서 애가 한없이 밍게 보이는 애도 있고, 또 나이도 똑같은 애인데 애는 그나마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는 그나마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좋은 교사라면 아이들을 공정하게 대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27일)

늘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이 대하고 그런 거요. 그냥 아무래도 나는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면 누군 좀 더 예쁜 아이들이, 누구든 그렇기도 한데, 유아교사 직업을 선택한 분이라면 다 똑같이 마음을 주고 조금 힘든 아이일수록 조금 더 정을 많이 주시고 그냥, 걱정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교사가.. 늘 바라죠. 공평한 교사

(규빈 어머니, 2015년 8월 10일)

영현이 어머니 같은 경우 유치원 교사를 한 경험이 있는 친구를 통해 교사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유아도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전문가라면 모든 유아에게 공평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또 규빈이 어머니는 실제 피아노 교사를 하며 느낀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정 유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갈 수는 있지만 좋은 교사라면 모든 유아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공평함이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사랑을 더 주는 것, 힘든 아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는 상대적인 기준에서의 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3)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며 느끼는 교사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감사함

어머니들은 교사에게 기대하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라는 점

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주로 표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둘째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의 어머니들은 유아의 연령적 특성상 어느 연령의 교사보다 더 수고한다고 감사함을 표현하였다.

저는 유치원에서 ‘애들이 이제 뭔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생기고 6살, 7살 되면 그러겠지.’ 라고 생각은 하죠. 근데 그래도 ‘조금 버거울 것 같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런 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아이 하나 하나에 신경 쓰기에는 아직은 관찰자 입장인 선생님한테서는 다 감당하기는, 커버하기는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도 요즘은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도 학생 수가 20명 정도인데 이게 또 적당하다고 하고 선진국 학교도 그렇게 적은데 유치원이 오히려 많지 않은지...

(채연 어머니, 2015년 7월 28일)

음~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갔다 오면 이래요. “엄마, 선생님이 자꾸 소리를 지르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 선생님 말씀 잘 듣니?” 그러면 아니래.. “그러니까 화를 내시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같은 저희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한명보기도 힘든데 여러 명을 같이 보면 정말 그럴 수 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기는 하죠. 이해는 되요. 하지만 교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죠.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27일)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도 아이가 둘인데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저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행동들에 대해 뭔가 이해를 하긴 하죠. 전문가로서 그런 모습은 안 되겠지만요.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위에서의 이야기와 같이 어머니들은 집에서 유아들과 지내며 느끼는 어머니들의 고충들을 교사도 느낄 것이라고 예상하며 공감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엄마와는 다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유아들을 대해주었으

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었다.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여태까지 다 참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영현 어머니, 2015년 6월 11일)

연구에 참여하면서 좋은 교사에 대해 생각 해 보니, 이때까지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던 거 같아요.

(시우 어머니, 2015년 6월 20일)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 또 이런 면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선생님 어떠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애들이 다 반응이 자기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라고 믿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좋고 또 좋은 교사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나윤 어머니, 2015년 6월 28일)

어머니들은 연구에 참여하며 2차례 면담을 통하여 자녀가 만난 유치원 교사들을 되돌아보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어머니들의 좋은 교사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사에 대한 인식을 면밀히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첫째,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둘째, 유아를 존중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는 교사, 셋째,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로 나타났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이 교사의 인성을 강조하였으며, 교사로서 바른 인성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의 이러한 생각은 정다우리(2013)의 교사 인성 수준이 높을 때 교사-유아 간의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로 인해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재원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유아교사는 대리 양육자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사회화 및 인성 형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연구결과(정재운 외, 2009; 최일선, 2009)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세계 최초로 2015년 7월 21일부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우리 나라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예비 교사를 교육하거나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거나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교사 인성교육이 의무화되고 교사 자격증을 받기 전 인성 검증의 단계가 있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교사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고 교사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교육 전문가가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교사들은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는 유아에게도 영향을 주어 사랑과 신뢰를 쌓는 밑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이는 이경하와 석은조(2010)가 교사가 유아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효과적인 교육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교사가 유아에 대하여 공감하며 수용적인 태도로 대응하거나 유아가 표현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사들의 학급 유아들은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권용미, 2015)를 보았을 때에도 교사가 유아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보았다. 과중한 업무 중에도 수업 준비를 성실히 하는 교사에게 유아들은 더 집중을 하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하여 질 좋은 교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감정 조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은 화가 나거나 감정 절제가 어려울 때에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눈을 감는 등 자신만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이 생각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유아와 정서적 교류를 잘하고, 의사 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유아, 학부모, 동료 교사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함으로써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노은숙 외, 2012) 교사들이 감정 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이전에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는 외적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은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는 외적 요인으로 잦은 야근이나 학부모, 동료교사, 유아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들을

들었다. 교사들 스스로도 감정을 조절하려는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업무를 제도적으로 줄여주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에서 계속 되는 배움을 꼽았다.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은 연수,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 전문서적 읽기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유아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이 모두 필요하며, 직전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직에서의 경험과 자기 성찰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발전 및 변화 해 가야함을 강조한 염지숙 외(2011)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유아들에게 모범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계발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유아교사의 자질로 제시한 이경화와 석은조(2010)의 의견을 지지해준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 교사들은 대학원에 진학 하여 배움을 이어 나가기도 하였는데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며 교사로서의 유능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사 생활에서 활력을 얻고,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안유리와 이대균(201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교사들이 배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나 대학원 진학 등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연수나 대학원 등의 재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더 많은 교사들이 배움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이 좋은 교사를 더 많이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기대가 된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사는 첫째,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둘째,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 셋째, 긍정적이고 행복한 교사, 넷째, 유아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조력하는 교사, 다섯째, 어머니들이 좋은 교사에게 가지는 기대와 감사함으로 나타났다.

첫째, 어머니 10명 모두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를 꼽았다. 전상희(2012)의 연구에서 교사의 인성적 특성에 대한 학무도 선호도 중 유아에 대한 사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사랑은 어떠한 방법으로 수치화 되어 측정 될 수 없기에 오히려 현장에서는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적인 요소보다 교수업무 처리 능력이나 평가 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평가 되고 있으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은 유아기의 특성상 특히나 어떠한 교육적인 가르침이 있기 이전에 유아가 만나는 첫 선생님께서도 엄마 다음으로 만나는 성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유아와 해 줄 교사에 대한 바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들 또한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부모들이 전문적 지식, 교수기술, 교직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전문적 자질도 중요하지만 인성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인적 자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 신화연(2014)의 연구와 일치한다. 인성을 갖춘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인성을 갖추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일 대 다수의 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예상을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자질로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의 중요성과 필요가 아닌 필수인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를 볼 때 교사의 인성 교육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사가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좋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학부모들이 아이의 교사는 긍정적이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 한 정명숙과 황해익(2010)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행복한 교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다양한 강점을 활용하여 삶을 영위하고자 하며, 그러한 교사의 행복은 원장과의 관계, 근무환경, 보수 및 승진 등과 정적 관계가 있다고 한 최윤정(2009)의 연구결과를 볼 때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개인

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를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여 유아교육 현장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좋은 교사는 유아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학부모가 선호하는 교사의 전문성에서 유아 정서 발달에 대한 지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수 기술은 유아가 이해하기 쉽고, 유아의 사고를 촉진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 하는 교사의 능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전상희(2012)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교사들과의 전화 상담이나 면담 때에도 일상적인 부모에게도 관찰 되는 모습들이 아니라 유아의 구체적인 활동을 사례로 들며 관찰 한 이야기를 듣고 그 후 유아의 행동이 변화 될 때에 교사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되며 좋은 교사라고 인식 하게 된다는 이야기들을 종합 해 볼 때 교사는 유아를 세심하게 관찰 하는 관찰력과 그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지원 해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다섯째, 어머니들은 좋은 교사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일상적인 내용은 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유아교사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반영 되어 유아가 보이는 문제 행동이나 어려움이 사라질 때 만족감이 크고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는 강민정과 유희정(2012)이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과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사는 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찰을 통해 부모와 의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 이를 위하여 부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율적으로 부모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화기술을 향상시켜야 하며, 교사 교육 또는 경력 간의 멘토링을 통해 부모와의 상호작용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공평한 교사를 원하는 마음과

내 아이를 더 사랑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임승렬과 전방실(2014)의 연구에서 규칙 제정시 유아의 의견을 반영한 다든지 공정성 교육에 개인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에서는 유아 부모와 교사도 역시 그렇다 로 응답하여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공정성 교육이 필요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 하면서 내 아이를 더 사랑해 줬으면 하는 마음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공정성은 유아들의 삶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판단 기준이며 이를 통해 초보적인 도덕성을 습득되어지므로(임승렬, 전방실, 2013)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정의와 공정성의 개념이 다루어지고는 있으나 공정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이 필요 하며 교사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바르게 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며 느끼는 교사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감사함이다. 이는 박정옥(2000)의 연구에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아교사 선호에 있어 담임교사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내 아이를 지금의 담임교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 한 것과 일치 한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 바라는 점 보다는 자신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교사가 전문적 지식으로 채워주는 것이 감사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들은 연구에 참여하며 좋은 교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 해 보았지만 내가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 해 보게 되고 자녀의 교사를 떠올렸을 때 참 감사하고 교사를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고 연구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유아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결론 및 제언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얻은 논의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바른 인성을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자질로 꼽았다. 교사들은 유아들이 인성이 형성 되는 시기에 만나는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며 학습하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좋은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교사라고 언급하였다. 교사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유아를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며 공감해주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 하였다.

셋째, 교사들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 하는 교사를 좋은 교사의 특성으로 보았다. 과중한 업무 중에도 수업 준비를 성실히 하는 교사,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해 노력 하는 교사, 현장에서든 계속 배움을 이어가는 교사를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은 연수, 대학원 진학, 유아교육 전문서적 읽기 등이 포함되었다.

. 어머니들은 좋은 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첫째, 어머니 10명은 모두 공통되게 유아교사의 개인적 자질로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를 꼽았다. 영유아의 특성상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유아에게도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둘째, 어머니들은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에 대해 10명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인성을 갖춘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들은 자신이 유아를 가정에서 교육하며 경험 했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나 바른

인성과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일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일 대 다수의 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예상을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좋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개인적 자질로 바른 인성을 가진 교사의 중요성과 필요가 아닌 필수인 것에 대해 강조 하였다.

셋째, 교사가 긍정적이고 행복해야 좋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아무리 좋은 교사의 소양을 갖추었다고 해도 반복되는 야근이나 피로가 누적 된다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였다. 긍정적인 교사가 유아를 좀 더 칭찬하고 유아의 좋은 점들을 바라봐 줄 때에 유아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유치원 생활도 즐거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신이 결혼 전 근무 하던 직장 상사나 동료에 비유하며 교사의 밝은 에너지와 긍정적인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넷째, 좋은 교사는 유아를 관찰하여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훈육은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하고 실수를 한다고도 이야기 하는 반면 유아교사는 유아교육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아를 관찰하고 적절히 지원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째, 어머니들은 좋은 교사에 대한 기대와 감사함을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더 자주 연락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유아 대 교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이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일상적인 내용은 전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유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유아교사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반

영 되어 유아가 보이는 문제 행동이나 어려움이 사라질 때 만족감이 크고 좋은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공평한 교사를 원하는 마음과 내 아이를 더 사랑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일부 부모들은 공평만을 이야기하기도하고 어떤 부모들은 내 아이의 성향과 맞는 교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양상으로 갈렸다. 또한 어떤 부모들은 공평함을 원하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표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사실은 어쩔 수가 없으며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럴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유아를 양육하며 느끼는 교사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감사함이다. 어머니들은 유아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그로인해 자녀를 양육하며 겪게 되는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해 연구자에게 이야기 하며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르는 자녀 1~2명에게도 가끔 화가 나기도 하고 올바르게 훈육을 한 뒤 훈육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의 교사에게 만족 한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이상 본 연구에서 얻은 논의와 결론을 중심으로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부모는 유아교사의 자질 중에 개인적 자질의 인성적 특성과 전문적 자질을 갖춘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 교사의 인성 교육과 교직태도를 함양 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교사평가 도구 및 교사 선발 기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좋은 유아교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았으나 더 많은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보는

양적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좋은 유아교사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감 및 부장, 원장 등 그 밖의 유아교육기관 종사자와 같은 인적환경의 자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 두 집단의 좋은 교사에 대한 실제, 그들의 인식을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두 집단의 관련성을 찾고 좋은 교사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유치원 교사와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식을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좋은 교사에 대해 교사와 어머니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유아를 교육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교사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좋은 교사에 관련 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 또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계나 환경이 개선되고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 강민정, 유희정(2012).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50(2), 25-38.
- 강문희, 윤애희, 이경희, 정정옥(2002). **유아교육기관 운영관리**. 서울: 학지사.
- 강소영 (2011). 영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어머니가 인식한 '좋은 영아교사'의 의미탐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2 - 164호. 교육과학기술부
- 권건일, 신재흡 (2007).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1
- 권용미 (2015). 유아교사의 상위기분 및 정서적 대응방식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내석사 청구논문.
- 김규수(2001). 포스트모더니즘적 유아교육관 고찰. 유아교육연구, 21(1), 161-176.
- 김경철, 정아림, 신설아(2015). 예비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좋은 유아교사의 특성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185-203.
- 김병찬 (2005). 현대 교사상 탐색을 위한 질적 분석 연구. 한국교육, 32(4), 57-90
- 김성원, 석은조, 신성숙, 신은정, 이춘옥 (2010). **유아교육개론**. 서울: 공동체.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정화 (2014).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인식과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3), 343-364.
- 김정숙, 이종향, 박영숙, 조현정 (2011) 유치원 교사, 학부모, 일반인이 인식하는 유치원 교사의 직업 이미지. 유아교육학논집, 15(3), 459-484.
- 김정애 (2006). 유치원 초임교사의 입문교육에서 멘터 역할 및 인성 특성과

- 조직유효성간의 관계 연구. 경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원 (1998). 유아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수준과 기대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7). 교사 학부모가 선호하는 유아교사의 자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라 (2013). 과학에 대한 태도 및 과학교육지식이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3(2), 281-296.
- 김현란 (2015). 유치원 원장이 요구하는 유아교사의 모습. 중부대학교 대학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용 (2013). 좋은 교사의 자질. 교육철학연구, 38, 27-46.
- 나귀옥, 김경희(2008). 포스트모던 사회의 유아의 이해에 근거한 유아교육의 방향. 미래교육학회지, 15(2), 353-376.
- 남분희, 유연옥 (2011). 유치원 교사의 직무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 아동교육, 20(2), 97-109.
- 노은숙, 부성숙 (2012).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3(4), 113-135.
- 방경선 (2013).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수연 (1999). 유아교사 자질과 양성 체제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혜 (2003). **유아교사론**. 서울: 창지사.
- 박정옥 (200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승선 (2010). 좋은 교사의 특성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

- 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변경애 (2008). 유아교사의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혜, 유신영 (2004).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관점. 교육학연구, 42(4), 285-315.
- 서동미, 전우경, 엄은나 (2008). 교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본 '좋은 교사'의 의미 탐색.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12(2), 261-303.
- 서영숙, 김경혜(2004). **영유아 보육론**. 서울: 양서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2013).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유아교육지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 손유진, 이규진, 이정주 (2008). 유아교사 이미지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머니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인간과 문화 연구, 14, 63-100.
- 송주연, 황해익 (2010). 좋은 수업에 대한 유치원 교사들의 이야기.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99-423.
- 송광용 (2000). 21세기의 학교교육체제와 교사자격증 제도. 한국교원교육학회, 17(1), 93-110.
- 신화연 (2014). 유아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유리, 이대균 (2012).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유아교사들의 경험과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7-52.
- 양옥승 (2002). 유치원교사 양성체제와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 한국교사교육, 19(1), 25-43.
- 엄은나, 서동미(2009). 좋은 교사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 유아교육논집, 13(2), 5-35.
- 유영의 (2011). 미국과 캐나다의 유아교사 핵심 역량 분석과 교육적 시사. 교

- 육사상연구, 25(2), 153-177,
- 유해인 (1990). 유아교사 자질에 관한 부모들의 기대와 평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경 (2013). 좋은 교사에 대한 예비 유아교사들의 신념 변화. 한국보육학회, 13(2), 103-122.
- 이경민, 엄은나 (2005). 유아교사 자질에 대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참여교사의 기대와 자기평가.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9(4) 133-152.
- 이경하, 석은조(2010). 예비교사와 현직교사가 생각하는 좋은 유아교사의 자질.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167-187.
- 이경화, 박숙희, 최병연 (2012). 교사의 창의성교육 역량 및 창의성과 유아 창의성의 관계. 송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2(12), 3-14.
- 이미경, 이시자(2014). 유아교사와 예비유아교사의 좋은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 21(4), 37-161.
- 이은화, 배소연, 조부경(1995). **유아교사론**. 서울: 양서원.
- 이진주 (2007). 유아의 창의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창의적 역할수행과 지식 및 내적동기간의 인과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욱 (2000). 교사의 지식과 유아교사 교육. 한국교사교육, 17(1), 355-378.
- 이혜숙 (2013). 좋은 과학 수업에 대한 초등 교사의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현숙 (2001). 유아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경북논총, (5), 313-328.
- 임미정, 이완정 (2001). 유아의 연령별로 요구되는 교사의 특성에 대한 종사자와 어머니의 기대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7, 56-73.
- 임승렬, 전방실 (2013). 자유선택활동에서 나타난 유아 '공정성'에 관한 연

- 구. 보육복지연구, 17(3), 75-100.
- 전방실, 임승렬(2014) 유아교사와 부모의 공정성 인식과 실태 및 적용에 관한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18(5), 453-478.
- 전상희 (2012). 유아교사 자질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재선 (2011).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재선, 최종욱 (2012). 유아교사 인성 자기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 12(1), 149-174.
- 정다우리 (2013).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관심사 및 교사 인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회, 81, 49-70.
- 정명숙 (2007). 유치원 교사의 유아 과학 교육에 대한 지식과 태도.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255-279.
- 조경자 (2007).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유아교사의 특성. 미래유아교육학회, 14, 561-586.
- 조부경 (2013). 유아교육 보육 통합을 위한 교원 정책 방안. 한국유아교육연구, 15(1), 25-53.
- 조운주 (2007).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좋은 유아교사의 특성. 충주대학교 논문집, 42, 541-550.
- 정명숙, 황해익 (2010).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의 이미지. 한국아동학회. 31(3), 67-82.
- 차정윤 (2007).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유아교사상에 대한 질적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기영, 모정아, 권진주 (2012). 유치원 교사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전통문화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245-265.

- 최옥자 (2009). ‘좋은’유아교사의 의미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일선 (2009). 유아교사의 자아개념과 인성개발 효능감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 연구, 13(2), 219-237.
- 최혜진, 황해익 (2005).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자기평가에 대한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187-208.
- 한명자 (1993). 유치원 교사의 자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진 (2001). 어린이집 교사 자질에 대한 기대수준 및 자기 평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unting, Carolyn (2006). *Good teacher: Who they are and how we fail them, The Clearing House*. July/August. 245-246
- Dewey, J. (1933).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s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Lesngton, MA: D.C. Heath.
- Helm, Carroll N. (2006). *Teacher Dispositions as predictors of good teaching. Clearing House, 79(3)*, 117-118.
- Jalongo, M. R., Isenberg, J. P. (2000). *Exploring your role, A practitioner's introduction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New Jersery: Upper saddle River. Practice-Hall Inc.
- Ling, Y. L. (2003). What makes a good Kindergarten teacher? A pilot interview study in Hong kong.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1)*, 19-31.
- Marsh, H. W.(1991). Multidimensional students' evaluations of teaching effectiveness: A test of alternative higher-order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 285-296.

OECD (2011).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http://www.oecd.org/edu/school/49322268.pdf>

ABSTRACT

Discourses of mothers and teachers about good early childhood teachers

Kim Seonah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find out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and mothers about what is the quality of a good teacher, effort of being a good teacher and what really is the good teacher, and find out alternatives by looking through stories told by kindergarten teachers and mothers whose children go to kindergarten. This research, therefore, ultimately tries to help understanding of the good teacher at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The research questions settled for the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hat kind of teachers do kindergarten teachers think a good childhood teacher?

Second, What kind of teachers do mothers whose children go to kindergarten think a good childhood teacher?

For data collection of this research, I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 with 10 kindergarten teachers and 10 mothers whose children go to kindergarten from 23 of May to 30 of October 2015. There were a total 40 times of interview; 2 times of interview with 10 kindergarten teachers and 2 times of interview with 10 mothers. The contents of each individua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were written down on papers. The written interview contents were repeatedly read and then classified and categorized.

Summaries for this research according to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good teacher that kindergarten teachers think is a teacher who has an upright personality, who respects children and empathize with children through mind and who tries hard to be a good teacher. The kindergarten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says the upright personality of good kindergarten teachers who meet children when the children's personalities are forming is not something necessary but is indeed essential. They also says the good teacher should respects children as equal beings as them with all the manners and empathize with them. Lastly, the kindergarten teachers says a teacher who tries and prepares hard for providing good instructions and class is a good teacher. They sees preparation for the class and enthusiasm for the class are characteristics of the good teacher.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think that children may concentrate more and participate in the class with more fun provided by the teacher who always does teaching with passion. They, thus, thinks this ultimately leads to a better education with a good quality.

Second, the good teacher that mothers whose children go to kindergarten

think is a teacher who loves children, who has an upright personality, who is happy and positive, and who supports children after taking a good observation. These are the expectation and appreciation by mothers. Mothers think that kindergarten teachers are the people who teach and care at the same time their children, which means if the teachers did not have a love and caring mind then it would be very difficult things for teachers, parents and children as well. Mothers also think a teacher having an upright personality is the good teacher as the kindergarten teachers says. Among the personality, mothers says patience is the most important one. Mothers also thinks the teacher should be happy and have a positive mind to play a good teacher role. Further, mothers says that the good childhood teacher is an expert in childhood education area, and thus the good teacher should observe children, support them and consult well with parents about their children. Mothers also mention about expectations and appreciations about the good teacher. Although mothers w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teachers about their children more often, mothers do expect that it would be a burden for teachers as a ratio of children to teacher is high. Mothers also talks about conflicts inside their minds; they do think that the good teacher should treat all children equally, but mothers also want that the teacher could care and love my child more.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shows appreciations to teachers since the teachers need more effort than other teachers in educational institute teaching different age-class as it is more difficult to treat children in kindergarten due to their age-concerned characteristic.